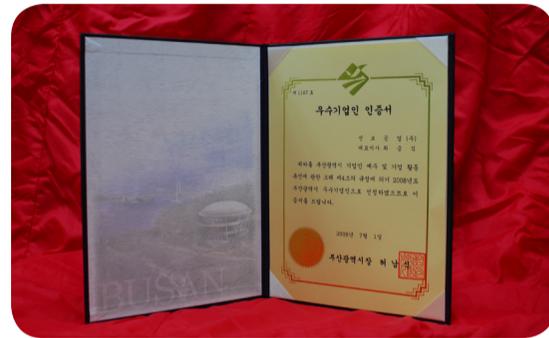


대표이사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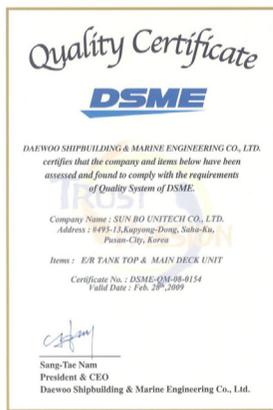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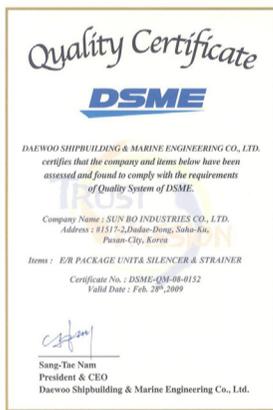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은 1999년 시작되어 기업건설도, 사업성, 수출실적, 기술개발실적, 사회봉사 활동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지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지난 7월1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우리회사 최금식 대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2007년 전년대비 71%의 순이익 증가와 낮은 부채비율 등 탄탄한 재무구조등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상을 수상 하게 되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내 유료도로 3개소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DSME 무검사 인증



선보의 품질우수가 또한 번 빛났다. 지난해에 이어 본사와 선보 유니텍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부터 자주검사인증(MQC: Maker Quality Control)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와 같이 E/R PACKAGE UNIT와 SILENCER, STRAINER 등이 해당품목이다.

E/R PACKAGE UNIT같은 경우 자체적인 검사가 가능하긴 하나 인증과정 상의 이유로 모든 과정이 무검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SILENCER, STRAINER는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생산품목 등에 걸리는 공정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 시행 후 모두 무검사 인증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품질향상에 노력한 많은 직원들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섬세하고 작은 관심들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줬으며 이러한 결실이 앞으로의 업무에도 많은 자극에 되어 더 많은 발전을 기할 것이다.

무검사 인증 효력은 지난 3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번 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제대로 쉬어라! 선보인을 위한 공간, '선보 하계 휴양소'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족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선보인을 위한 공간, 선보 하계 휴양소가 마련되었다. 선보 하계 휴양소는 기장군 용공사 지나서 대변항 쪽으로 1Km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상호는 “토속촌”으로 되어 있으며 전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본관 외에 7개의 방갈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샤워와 세면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과의 짧은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기장 해변에서 5분 거리 이므로 낮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때 사용 가능하며, 휴양소 근처에 회 센터와 꿈장어로 유명한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방갈로 앞 바다는 수심이 낮아 어린 유아들이 물놀이 할 수 있으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선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선보인들은 간단한 개인 세면도구와 1회용 숯과 돼지고기를 준비하면 된다. 사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불을 챙기는 것에 유의하고 수량 부족으로 인해 부족할지 모를 코펠과 버너 등 취사도구를 간단하게 챙긴다면 올 여름 실속있는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경영혁신

선보혁신NEWS 

최홍렬상무의

이 한권의 책

“Best practice 공유로 실천역량 강화!”

우리회사는 지난 달부터 선보혁신NEWS를 통해 경영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함으로써 전사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다. 이번 달 역시 많은 개선 사례 중 그 파급효과가 큰 4가지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선보혁신NEWS로 전달하였다.



플랜지 셋팅 지그 개선 → 작업시간 절반 이하 단축

구평공장에서 개선한 플랜지 셋팅 지그 사례는 대형관 조립 시 발생하던 과다인력 소모와 작업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기능 펀치기 사용설명서 제작 → 가동효율 100% 향상

다대1공장의 다기능 펀치기 기능별 사용설명서 제작, 부착 사례는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숙련자들도 몰랐던 다양한 기능을 알게 함으로써 다기능 펀치기의 가동 효율을 100% 향상시켰다.

스티커 보관함, 자전거 주차대, 복사실전용 스태플러 설치 → 이동낭비개선

다대1공장의 자주 사용하는 4종의 스티커를 모아둔 스티커보관함 설치와 자전거 주차대 설치, 복사실 전용 스태플러 설치 등의 사례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낭비를 개선하였다.

5S 차근차근 매주 하나씩 → 5S 활동 생활화 정착

다대3공장의 '차근차근 매주 하나씩' 사례는 5S활동을 매주 정리(1주) → 정돈(2주) → 청소(3주) → 청결(4주) 순으로 매일 실천함으로써 5S 생활화 정착을 위한 모범 활동사례로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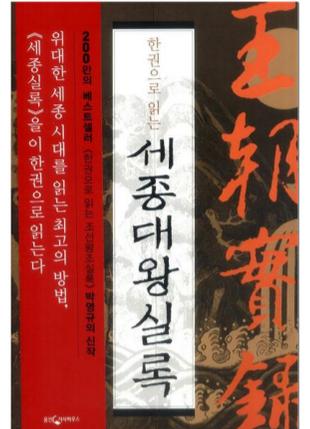
안전교육

사람의 10가지 실수

1. 기능실수 기능으로 범하는 실수
2. 착각실수 마음이 조금해서 착각이 일어나는 실수
3. 깜박실수 깜박 잊어버려서 일어나는 실수
4. 덤벙실수 빠뜨려 버리고 얼핏 보아서 틀리는 실수
5. 초보자실수 알지 못하는 일이나 어설프게 알고 있어 발생
6. 제멋대로 실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멋대로 결정해 물을 무시하는 실수
7. 뜻밖의실수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실수
8. 둔한실수 판단이 늦음에 따라 반응이나 동작이 둔해 발생하는 실수
9. 방치실수 적절한 지시나 작업표준이 없이 작업자에게 맡겨 버려 발생하는 실수
10. “어?” 실수 예정된 작동을 하지 않고 “어?” 라고 생각되는 실수

세종대왕실록

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한 몸 상태를 잘 돌봐야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세종 또한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야근으로 인하여 30세 초반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치유와 재발에 많은 시간을 허비 함을 볼때 건강은 보약이나 발생 후 치료 보다는 걷기, 손뼉치기, 자주웃기 등 평소의 작은 실천이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앵글류는 1년 전에 580원/kg에서 현재 1260원/kg으로 117% 인상되었습니다. 직접 느끼는 기름 값이 무서워 주유소에 가기거 겁이 나고 눈금은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위기 이전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을 때 기회가 찾아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연속극으로 방영되고 있는 세종대왕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고, 조선의 여러왕 중에서 왜 세종을 대왕으로 부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세종대왕같은 지혜가 조금만 있었으면...

덧붙여 6-25는 1950년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으며 8-15 해방은 1945년도 입니다.



선보 새내기들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손정락 박용갑 임경우 송헌범 황민환 송지영
김상대 정민규 최진영 박황수

인터뷰 **창립기념일 식사**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선보가족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조차도 없는 달세 땅에서 용접기와 절단기만 가지고 선보의 전신인 남영공업을 창업하여 창립22주년을 맞이한 지금 6개의 자가공장과 1개의 임대공장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견기업을 뛰어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고성, 전북군산 그리고 경남하동에 생산기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업초창기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련과 아픔에도 불굴의 투지와 끝없는 희생과 도전정신으로 본인을 믿고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오늘의 선보가 태어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 창업 초창기 멤버와 가정에서 내조를 다한 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재가 급등이 우리 회사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약 200억원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몇몇 특장인원을 제외하고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안은 고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립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가절감과 비상경영대책을 부르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 뿐, 800여 선보가족의 무사안일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부동에 사고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만 가득합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는 절친한 동료 한분을 안전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 하는 비통하고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한 안전사고 예방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 버렸고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말뿐인 안전, 실천 없는 안전사고 예방은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우리

의 동료를 우리의 곁에서 멀리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안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장의 달콤함에 빠져 무사안일과 자만심이 뼈 속 깊이 박혀 우리 회사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불가능을 없다, 무사안일의 사고와 현실안주의 틀을 가감하게 부서 버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나 선보고유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맑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인식과 함께 선보고유의 끝없는 도전과 불굴의 투지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선보가족의 저력과 힘을 믿습니다. 선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입니다. 사라진 우리의 도전정신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본인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한마음 하나 되어 힘찬 항해를 시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그날까지 힘찬 항해를 계속해나갑시다.

끝으로 회사발전과 회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보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선보가족 모두의 건강과 함께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이
선보공업주식회사, 선보유니텍주식회사, 선보하이텍주식회사
총괄대표이사 **최 금 식**

추천여행지 **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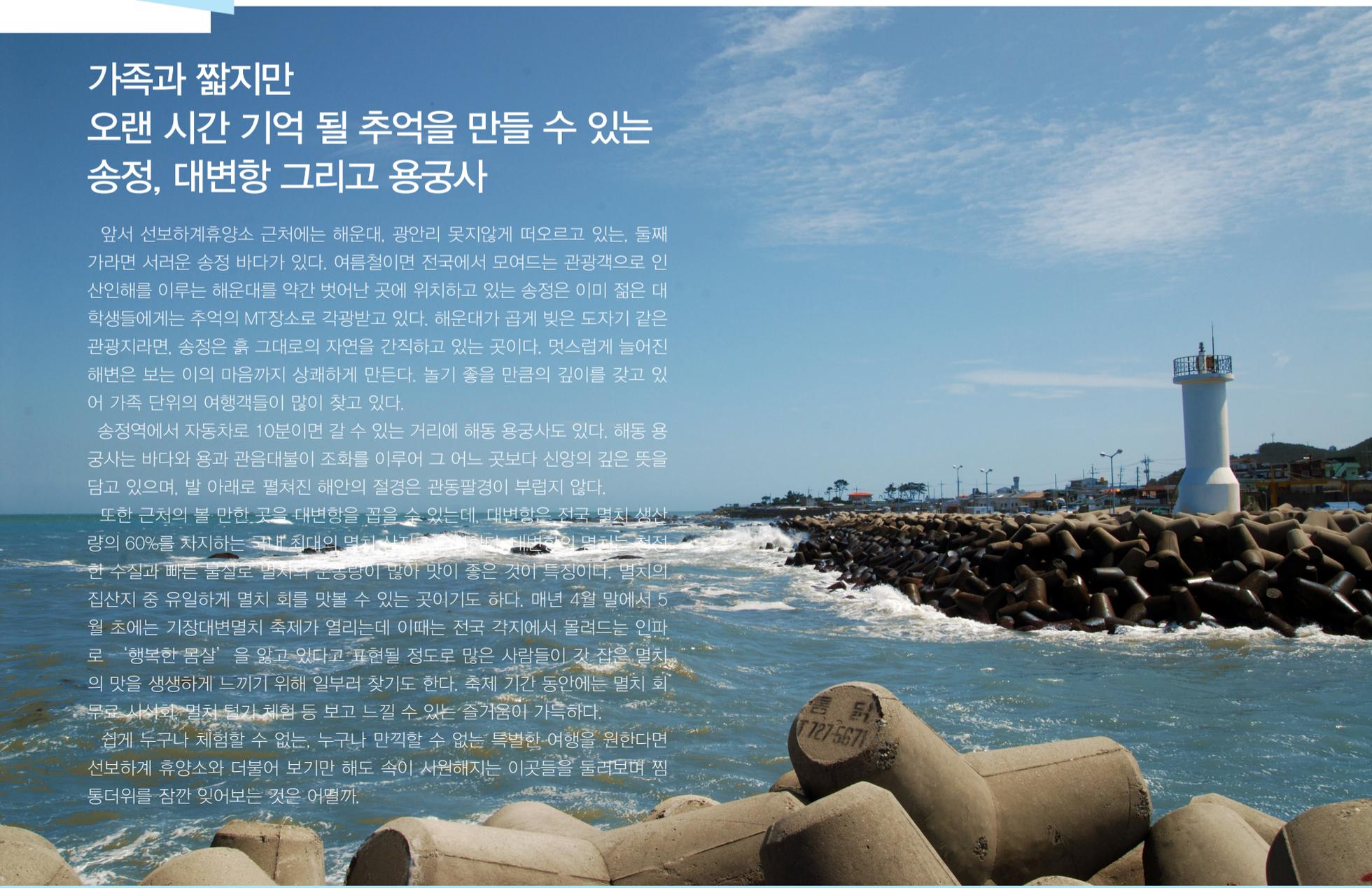
가족과 짧지만 오랜 시간 기억 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송정, 대변항 그리고 용공사

앞서 선보하계휴양소 근처에는 해운대, 광안리 못지않게 떠오르고 있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송정 바다가 있다.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해운대를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송정은 이미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추억의 MT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운대가 곱게 빛은 도자기 같은 관광지라면, 송정은 흙 그대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멋스럽게 늘어진 해변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놀기 좋을 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송정역에서 자동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해동 용공사도 있다. 해동 용공사는 바다와 용과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어 그 어느 곳보다 신앙의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발 아래로 펼쳐진 해안의 절경은 관동팔경이 부럽지 않다.

또한 근처의 볼 만한 곳을 대변항을 꼽을 수 있는데, 대변항은 전국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멸치 산지이다. 대변항의 멸치는 청정한 수질과 빠른 물살로 멸치의 운동량이 많아 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멸치의 집산지 중 유일하게 멸치 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기장대변멸치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행복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갓 잡은 멸치의 맛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일부러 찾기도 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멸치 회 무료 시식회, 멸치 튀기 체험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쉽게 누구나 체험할 수 없는, 누구나 만끽할 수 없는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선보하계 휴양소와 더불어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이곳들을 둘러보며 찜통더위를 잠깐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생현장의 소리

임재환, 임기환 쌍둥이 형제

‘젊음의 패기에서 미래의 인재로’



지난 5월, 우리 회사에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입사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또래의 친구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증진하고 있을 때, 쌍둥이 형제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현장에 뛰어 들었다.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는 두 청년을 만나보았다.

‘가치 있는’ 기술의 현장을 찾아서

“저희가 많은 일들 중에서 그리고 많은 조선 관련 업체 중에서도 선보를 찾게 된 것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조립같이 단순한 업무를 떠나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오랜 기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생각해보다가 조선 관련 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선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라고 또렷하게 말한다.

우리에게 ‘학업’ 보다 중요한 것은,

쌍둥이 형제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미래가 뚜렷하지 않은 막막함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과감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학업을 마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몇 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서 단지 한 순간이 선택이 아니었음을, 오랜 기간 고심하고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천천히 높여가는 일이 우선이겠죠. 아직은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설렘 등 많은 생각들이 교차해요. 책임감은 늘 가지면 되는 것이고, 부담감은 일을 배우면서 해소해 나가면 되는 것이며, 설렘은 늘 간직하고 있으려고 해요. 일찍 시작한 만큼 값진 경험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배울 시간도 많으니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배우려 해요”

젊음의 패기를 가슴 속 깊숙이 간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면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는 명실공히 인정받는 ‘인재’ 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28호 선보

칭찬 릴레이



도장부 안계연
그녀, 청춘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Q 칭찬 릴레이 28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오랜 기간 도장 관련 일을 해왔는데 그 시간들을 주위의 분들이 인정해준다는 것에 고맙고 그만큼 보람을 느껴요. 제가 칭찬을 받은 것을 아시는 분들께서 많이 축하해주셨어요. 제 청춘을 도장하는 데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동안 끝없는 열정을 쏟아 부었어요. 이전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해 볼 생각이예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요. 내 일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자부심이 애정이 생겨서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

기게 되요. 도장이 마치 제 천직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 일은 하고 싶은 욕구 혹은 여러 가지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체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바깥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일을 하다가 기절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봐요. 일이 몸에 맞지 않아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제 경우랑 비교해보면서 ‘아, 나는 천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랜 기간 단련된 경우의 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하는 일이 마지막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많으면 집에 못 들어가고 야근할 때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유독한 제 일 욕심과 작업을 끝내고 완성시켜서 납품할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이 매일매일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Q 29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몇 분들은 이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심 끝에, 차분한 태도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명성산업의 황 철 사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생일	입사 기념일
생산관리	생산부
백갑수 0702	최봉순 0701
설계부	이광일 0715
최우호 0706	최광욱 0725
생산부	고객지원팀
김병호 0713	심성섭 0702
유지종 0721	경영혁신팀
정세렬 0727	이경식 0703
생산부(유성)	설계부
최우태 0702	문종현 0709
생산부(순해)	이은정 0715
최진준 0716	영업부
박영호 0716	김미란 0712
생산부(금천)	관리부
최판조 0720	서재욱 0727
생산부(정수)	
김용하 0721	
품질보증부	
백승모 0712	
고객지원팀	
한진우 0726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클린그림찾기

5개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